

## 예수 부활 문제에 대한 소설적 접근의 몇 가지 유형

『가룟 유다에 대한 증언』과 『사람의 아들』을 중심으로

이동하

(서울시립대학교)

### 1. 머리말

신학자 한스 쾅은, 『왜 그리스도인가』라는 책 속에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 신앙의 중심인 동시에 다른 모든 신조의 기초가 되어 있다”(한스 쾅, 247)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그의 말은 조금도 과장된 것이 아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어떤 작가가 기독교 신앙을 본격적으로 문제삼는 소설을 쓰면서, 예수를 중요한 작중 인물로 등장시켰을 경우, 그가 과연 예수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 나가는가 하는 점을 따져 보는 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터이다.

한국의 장편소설 중, 기독교 신앙을 본격적으로 문제삼는 작품이면서, 예수를 중요한 작중 인물로 등장시킨 경우로는 세 편이 있다. 김동리의 『사반의 십자가』, 백도기의 『가룟 유다에 대한 증언』,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이 바로 그 세 편이다. 이 세 편 가운데 『사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내가 진작 『사반의 십자가』에서 예수의 부활을 다룬 방식,이라는 논문 속에서 자세하게 검토한 바가 있다.<sup>1)</sup> 이 자리에서는 나머지 두 편을 대상으로 해서 약간의 논의를 시도해 보기로 한다.

---

**【주요어】** 예수 부활, 사랑, 정의, 액자소설, 딜레탕트, 초월적 성격.

1) 이 논문은 2002년 2월 19일 서울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국현대문학회의 2002년도 동계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되었으며, 한국현대문학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한국현대문학연구』의 제11집에 게재될 예정으로 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해 둘 것이 하나 있다. 이 글에서는, 예수 부활의 사건 자체에 내재해 있는 다양한 문제라든가, 그것이 한국의 소설작품 속에서 다루어진다는 사실로부터 제기되는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생략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을 나는 『『사반의 십자가』에서 예수의 부활을 다룬 방식』에서 이미 자세하게 검토한 바 있기 때문이다.

## 2. 『가롯 유다에 대한 증언』의 경우

목사이자 소설가인 백도기가 1979년에 단행본으로 출간한 장편소설 『가롯 유다에 대한 증언』은 제목이 말해 주는 바 그대로 가롯 유다에게 초점을 맞춘 작품이다. 다들 아는 바와 같이 가롯 유다는 본래 예수의 열 두 제자 중 한 사람이었으나 스승을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넘겨 주는 배반 행위를 저지른 후 자살해 버린 인물로 복음서 속에 기록되어 있다. 백도기는 바로 이러한 가롯 유다에게 집중적인 조명을 가하면서 소설가적인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그를 예수와 대비시킨다. 백도기가 창조해 낸 상상의 공간 속에서 가롯 유다는 ‘사랑’의 이념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예수에게 ‘정의’의 규범을 가지고 맞서는 존재로 부각된다. 가롯 유다에게 이러한 면모를 부여하고 그를 예수와 맞세움으로써 백도기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궁극적 윤리의 지표는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자못 심각한 주제를 탐구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백도기는 『가롯 유다에 대한 증언』에서 실제로 이러한 탐구의 작업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 한 가지 흥미로운 소설적 장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 소설적 장치는 바로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작품의 화자이다. 화자인 시므온은 가롯 유다의 어릴 적 친구로 설정되어 있다. 이 시므온은 성장한 후 예루살렘 성전의 성물(聖物)판매소에서 일하는 상인이 된다. 그런 그를 대제사장 안나스가 불러 후한 보수를 주면서, 가롯 유다와 접선하라는 밀명을 내린다. 이런 연유로 해서 시므온은 오랜만에 옛친구 유다를 만나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그와 예수를 중심으로 한 저 비극적 사건의 전개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생생하게 목격한 증인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가롯 유다에 대

한 증언』은 이처럼 가룟 유다와 예수 사이의 드라마에 관한 한 누구보다 권위 있는 증인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유다의 자살 이후 근 30년의 세월이 지난 시점에서 과거의 일을 회고하는 형식으로 서술되고 있다. 그 회고담의 내용을 보면, 다양한 소설적 허구가 동원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리 적극적인 허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경우에도, 복음서의 기록과 근본적으로 상치되는 것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보면 백도기는 소설과 복음서 사이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대단히 조심스러운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반의 십자가』의 김동리보다도 조심스럽고, 『사람의 아들』의 이문열보다도 조심스럽다. 비교의 대상을 더 넓혀서 관찰해 보면, 단편소설 「아겔다마」의 박상룡보다도 조심스럽고, 그리스 작품인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의 카잔차키스보다도 조심스럽다는 말을 덧붙일 수 있겠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 대한 증언』을 쓰면서 이처럼 복음서의 기록과 근본적으로 상치되는 내용은 단 한 가지도 만들어내지 않고자 노력할 정도의 조심성을 견지하고 있는 백도기가, 정작 ‘그리스도 신앙의 중심’이자 ‘다른 모든 신조의 기초’가 되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아주 희미한 암시조차도 보여주지 않는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철저히 도외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과연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 것일까?

우선, 순전히 소설적인 차원에서의 ‘그럴 듯함’이라는 측면을 놓고 검토해보자. 이 소설의 화자인 시므온의 외형적 신분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 작품 속에서 예수의 부활이 암시조차 되지 않는 것이 크게 어색하지 않다는 느낌이 얼핏 들 수도 있다. 위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바와 마찬가지로 그는 예루살렘 성전의 성물판매소에서 일하는 상인이며, 대체사장 안나스의 밀정이기도 한 인물이다.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면, 예수 사후에 그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포되기 시작한, 예수가 부활하였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는 것도 자연스러우며, 더 나아가, 아예 그런 주장을 들은 일조차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 부자연스러울 것이 없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느낌은, 어디까지나 그의 외형적 신분 한 가지만을 주목하는 데서 그쳐 버릴 때에나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인정될 만한 것이다. 시므온이라는 인물의 내면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하는 점에까지 관심을 확대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이야기는 아주 달라진다.

작품에 나타나 있는 바로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내면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작품의 첫부분에서부터 그는, 한편에 있어서는 냉소적인 허무주의자의 면모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신적인 구원에 대한 소망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기도 한, 다소 복잡한 성격의 소유자로 등장한다. 그리고 작품 속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전개되어 나감에 따라, 그의 내면에서는 전자의 측면보다 후자의 측면이 점점 더 강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그의 변모는, 그가 예수를 가까운 자리에서 관찰해 보는 경험이 거듭됨에 따라서, 더욱 가속화된다. 그리하여, 마침내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후, 가롯 유다가 자살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된다.

그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억지로라도 그를 이끌고 골고다로 갔었다라면...그는 스승의 죽음을 통하여 보여준 행동에서 사랑만이 모든 악덕과 불의와 부자유와 고통을 몰아낼 수 있는 영원한 힘임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란 약한 것이어서 통렬한 회한과 굴욕과 부끄러움과 배반의 과정을 통하여서만 새롭게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오, 나의 사랑하는 친구 유다여(백도기, 156).

위에 인용된 시므온의 고백은 바로 『가롯 유다에 대한 증언』이라는 소설 자체의 맨 마지막 대목을 이루고 있는 것이어니와, 이러한 고백으로부터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시므온의 내면풍경은, 예수가 모범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사랑의 이념에 전폭적으로 감화된 사람의 그것에 다름아니다.

그런데, 소설의 끝부분에 이르러 이처럼 예수에게 전적으로 감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사후에 그의 제자

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포되기 시작한, 예수가 부활하였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철저히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일로 납득되지 않는다. 예수가 부활하였다는 주장에 접했을 경우 그가 과연 거기에 동조했을 것이냐 반대했을 것이냐 하는 점은 별도로 생각해 보기로 하더라도, 어쨌든, 그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전혀 아무런 언급도-심지어 희미한 암시조차도-하지 않을 만큼 철저히 무관심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가 가진 외형적 신분에 있어서의 특수성 때문에, 예수가 부활하였다는 주장 같은 것은 아예 들어 보지도 못한 채로 지내게 되고 만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어렵다.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던 것처럼, 작품 속에서 시므온이 과거의 일에 대한 회고를 행하는 시점은 가롯 유다가 자살하고 난 후 근 30년이 지난 시기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만큼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가 단 한 번도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본 일조차 없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개연성이 없는 설정이다.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가? 가롯 유다의 가장 오랜 친구였을 뿐 아니라, 말년의 예수를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대하고 지내면서 적지 않은 감화를 받은 경험까지 가지고 있는 인물이 아닌가? 그런 그가 어떻게 무려 30년 동안이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한 채 지내 올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백도기가 『가롯 유다에 대한 증언』을 쓰면서 예수의 부활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아주 희미한 암시조차도 보여주지 않을 만큼 철저히 도외시하는 태도로 일관한 것은, 소설적인 차원에서 ‘그럴 듯함’이라는 요건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경우로 간주되어야 마땅하다는 결론이 불가피하다.

물론, 이러한 측면에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가롯 유다에 대한 증언』이라는 소설 자체는 상당한 수준의 문학적 매력을 갖추는 데 성공한 작품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한 매력은 무엇보다도 이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류하고 있는 작가적 고뇌의 치열성과 문체의 세련미에서부터 온다. 하지만, 아무리 그러한 ‘매력’의 존재를 충분히 긍정하는 입장에 선다 하더라도, 내가 위에서 검토한 측면에서의 ‘실패’를 ‘실패’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인정해 줄 수야

없는 노릇이다.

이쯤에서 시선을 돌려, 작품에 나타난 주제의식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이 문제를 따져 본다면 어떨까?

앞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서 백도기는 예수와 가롯 유다의 대립을 사랑이라는 이념과 정의라는 규범의 대립으로 설정함으로써,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궁극적 윤리의 지표는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는 가라는 물음을 작품의 주제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복음서 본래의 의미에서 예수와 가롯 유다의 대립은 ‘스승’과 ‘제자’의 대립이면서 또한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입증한 신의 아들’과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보통 인간’ 사이의 대립이라는 두 가지 면모를 지닌다. 그러나 『가롯 유다에 대한 증언』에서 제시되고 있는 예수와 가롯 유다 사이의 대립에서는 이 중 후자의 면모가 완전히 배제된다. 결국 여기서 양자 사이의 대립은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대립으로 그치게 된다.

물론 이 경우의 ‘스승’이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스승의 수준을 넘어서는 대단한 존재이기는 하다. 그는 억울한 죄목을 뒤집어 쓰고 사형을 당하는 마당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백도기, 154)라는 기도를 올릴 정도로 무한한 ‘사랑’의 이념을 모범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우선 대단한 존재이다. 그런가 하면 그는 가롯 유다로 하여금 “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서 그처럼 능력을 행한 이는 없었으리라”(백도기, 135)는 믿음을 고백하도록 만들 만큼 대단한 기사(奇事)와 이적(異蹟)을 술하게 일으킨 인물이라는 점에서, 또한 대단한 존재이다. 하지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가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이 아무리 강조되더라도,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입증한 신의 아들’이라는 측면이 예수에게서 배제되면, 그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차원에 머무르는 존재로 그칠 따름이며 결코 그 차원을 넘어서는 존재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경우 예수와 가롯 유다 사이에 대립관계가 설정된다면 그 대립은 어디까지나 ‘인간인 스승’과 ‘인간인 제자’ 사이의 대립으로 그칠 따름이며 그것 이외의 다른 무엇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가롯 유다에 대한 증언』 속에서 예수와 가롯 유다 사이의 대립관계를 이런 성격의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결과, 이 작품 속에서 그들 양자 사이의 대립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초월적인 차원과의 연관성을 대부분 상실하며, 그 대신, 순수하게 인간적인 차원의 윤리적 주제에로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 『가롯 유다에 대한 증언』은 기독교 소설 가운데서도 매우 독특하게 현대적인 한 가지 유형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을 법하다.

### 3. 『사람의 아들』의 경우

『사람의 아들』은 1979년도 오늘의 작가상을 이문열에게 안겨 준 그의 출세작이다. 이문열은 『사람의 아들』을 1979년에 처음 선보인 후, 8년이 지난 1987년에 이르러, 이 작품의 대대적인 개작을 행한 바 있다.

『사람의 아들』의 개작은, 주로,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서 원작본에다 덧붙여 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반면에, 원작본의 내용 자체에 손을 대는 일은 가능한 한 자제하고 있다. 원작본의 내용 자체에 손을 댄 경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남경사가 민요섭의 노트를 입수하게 되는 양상을 수정하여 독자들에게 좀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도록 배려한 것 정도뿐이다. 이문열은 1987년에 개작본을 내면서 이 새로운 텍스트를 ‘개보판(改補版)’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사람의 아들』의 개작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명명에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느낌이 든다.

어쨌든, 이러한 개작의 결과로 『사람의 아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의 변화를 겪게 된 것이 사실이다. 예수의 부활이라는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원작본과 개작본은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여주게 된다. 원작본의 본문 속에서 이미 예수의 부활이라는 문제가 한 차례 다루어진 바 있는데, 개작본을 보면, 한편으로는 원작본의 그 본문이 아무런 수정 없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완전히 새롭게 집필되어 추가된 부분 속에, 그 본문과는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이 등장하고 있거니와, 이

러한 사실 때문에, 원작본과 개작본 사이에는 ‘주목할 만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원작본과 개작본을 차례로 검토하면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좀더 구체화시켜 보기로 하겠다.

### 3.1. 원작본 『사람의 아들』의 경우

『사람의 아들』은 액자소설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작품이다. 민요섭이라는 인물이 피살체로 발견되자 수사에 나선 남경사가 범인을 추적해 가는 과정이 겹이야기[外話]를 이루고, 남경사가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노트의 내용이 안 이야기[內話]를 이룬다. 원작본 『사람의 아들』의 경우, 그 ‘노트’는 민요섭에 의해 씌어진 소설 한 가지로 되어 있다. 그 소설은 예수와 같은 시대에 살았으며 예수의 가르침에 집요하게 대항하였던 아하스 페르츠라는 인물의 일대기를 담고 있다. 아하스 페르츠가 예수의 가르침에 집요하게 대항하였던 인물로 나오기 때문에, 자연, 이 작품 속에서는 예수자신도 안타고니스트의 위치에서 계속 등장하게 된다.

예수를 이처럼 ‘한 작중인물에 의해 씌어진 소설 속 허구(안이야기)의 등장인물’이라는 자격으로 출연시키고 있는 점에서, 『사람의 아들』은 『사반의 십자가』와도, 또 『가룟 유다에 대한 증언』과도 선명하게 대비된다. 『사반의 십자가』도, 『가룟 유다에 대한 증언』도 액자소설이 아니다. 작품의 진행을 이끌어 가는 주체가 『사반의 십자가』의 경우에는 전지적 서술자인 반면 『가룟 유다에 대한 증언』의 경우에는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일인칭 화자라는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그 어느 작품도 액자소설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이문열은 『사람의 아들』을 쓰면서 이들 두 작품의 경우와 다르게 액자소설의 형태를 선택하였거니와,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이야기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상상력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앞의 두 작품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크게 가지게 된 셈이다. 이 작품의 경우에는, 앞의 두 작품의 경우와 달리, 어떤 자유분방한 상상에 입각하여 이야기를 만들어나가더라도, ‘이것은 민요섭이라는 인물이 지어낸 이야기 속에 나오는 내용이니깐’이라고 해 버



리면 다 통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문열이 『사람의 아들』의 인이 이야기 속에서 실제로 아하스 페르츠를 중심으로 한 이런저런 사건들이나 그 사건들에 대한 해석을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과연 그는 액자소설이라는 형태를 선택한 덕분에 획득된 이러한 ‘상상력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의 아들』의 인이 이야기 속에서 이처럼 자유분방한 상상력의 날개를 펼치는 데 주저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면서도, 정작 복음서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만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자세를 견지한다. 개작본에 이르면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만, 최소한 원작본 『사람의 아들』의 경우에는 이처럼 조심스러운 자세가 철저히 지켜진다. 원작본 『사람의 아들』의 어떤 대목에서도 복음서의 기록 자체와 공존이 불가능할 만큼 상충되는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다.

물론, 원작본 『사람의 아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조심스러운 자세’라는 것은, 『가룟 유다에 대한 증언』에서 보였던 ‘조심스러운 자세’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사람의 아들』을 자세히 읽어 보면, 복음서의 기록 자체와 공존이 불가능할 만큼 상충되는 대목은 나타나지 않지만, 복음서의 기록 가운데 대부분을 무시하고 특정한 일부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그 ‘특정한 일부’에다가 새롭게 꾸며낸 이야기를 갖다 붙인다든지 그 ‘특정한 일부’로부터 독특한 해석을 끌어낸다든지 하는 작업은 아주 적극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거니와, 『가룟 유다에 대한 증언』에서도 이런 작업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 작업의 강도나 성격에 있어서는, 양자 사이에서 분명한 차이가 확인되는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이처럼 『가룟 유다에 대한 증언』과 비교해 볼 때 ‘조심스러운 자세’의 구체적인 양상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줄 뿐 아니라, 새롭게 꾸며낸 이야기를 갖다 붙인다든지 독특한 해석을 끌어낸다든지 하는 작업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어떠한 ‘예수상(像)’을 부조해 내고자 하는가라는 점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아니, 차이를 보여주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

나라, 완전히 반대되는 면모를 보여준다.

앞서 『가롯 유다에 대한 증언』을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할 때 지적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그 작품에 나타나 있는 예수는 ‘사랑’의 이념을 모범적으로 구현하고 있기는 하되 초월적 차원과의 연관성은 상실된 인물이었다. 달리 말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초월적 성격이 배제된 인물이었으며, 그런 점에서 보면, 세상의 평범한 인간들과 동일한 수준에 놓이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에 나오는 예수는 이와 정반대이다. 이 작품 속에 그려진 예수에게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초월적 성격만이 강조되고 있다. 그 반면 ‘사랑’의 이념을 모범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인물로서의 예수상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 세상 사람들의 슬픔과 불행 앞에서 따뜻한 연민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예수의 모습은 이 작품 속에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런 모습에 대한 희미한 암시조차도 나오지 않는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가 아하스 페르츠와 논쟁하는 장면 가운데 한 대목을 보자.

「그래도 말씀은 한 명의 의인을 위해 아홉 명의 죄인밖에 만들지 않았지만, 이제 당신은 한 명의 의인을 위해 구십 아홉 명을 단죄하게 될 것이오」

「그러나 내 아버지의 권능은 못 이루실 바가 없오 그 구십 아홉도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오 나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 왔오」

「그렇다면 당신은 더욱 그대로 떠나야 하오 그들은 이해 못할 죄의식과 거짓 눈물로 괴로운 참회의 길을 걷기보다는 괴롭더라도 자기들의 대지를 지키기를 원하고 있오」

「그럼 저들을 창조한 내 아버지의 목적은? 저들로 하여 자신의 영광을 더하려던 그분의 뜻은? 그리고 저들이 마땅히 그분에게 바쳐야 할 복종과 찬미는?」

(이문열 1979, 141~142)

위에 인용된 논쟁 장면 중의 마지막 대사에서 보듯, 이문열이 『사람의 아들』에서 민요섭의 창작소설이라는 매개장치를 통하여 그려내고 있는 인물로서의 예수가 지니고 있는 관심은 ‘내 아버지의 영광’이니 ‘인간들이 그분에게 바쳐야 할 복종과 찬미’니 하는 것들에 압도적으로 쏠려 있으며, 그들의 슬픔과 불행에 대한 따뜻한 연민 같은 것은 그에게서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일찍

이 이보영도 이 점에 주목하여, “예수는 ‘소름끼치는 위협’만 한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허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시인적이었고, 베다니의 마리아의 집에서 라자로의 죽음에 대하여 눈물을 보인 적도 있었다”(이보영, 42)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사람의 아들』에 그려진 예수상의 일방적 편향성을 비판한 일이 있음을 여기서 참고로 지적해 둘 만하다.

그러면, 이처럼 『가룟 유다에 대한 증언』과 정반대되는 입장에서 예수에게 접근하고 있는 『사람의 아들』은, 예수의 부활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가?

예수가 지닌 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초월적 성격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그에게 접근하는 소설이라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도, ‘예수 부활의 사건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비범한 초월적·기적적 면모를 갖춘 사건이다’라고 인정하는 태도에 입각하여 그려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터이다. 과연 『사람의 아들』의 안이야기를 보면 예수 부활의 사건은 그와 같은 태도에 입각하여 그려지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도 『사람의 아들』은 복음서의 기록 자체와 공존이 불가능할 만큼 상충되는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저 ‘조심스러운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예수의 가르침을 향하여 집요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아하스 페르츠라는 인물을 주인공의 자리에 놓으면서, 예수에게는 안타고니스트의 자리만을 배정해 주고 있는 소설이, 예수 부활의 사건을 평가하는 시각에 있어서조차 복음서의 그것을 수용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과연 『사람의 아들』의 안이야기에 담겨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예수 부활의 사건이 초월적·기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고스란히 인정하되, 그것에 대한 평가는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것과 전혀 다르게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사람의 아들』의 안이야기는 예수가 부활하는 장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대신 십자가에 못박힌 그가 신을 향해 보내는 호소의 말을 통하여 부활 사건에 대한 작자의 시각을 담아내고 있는데, 바로 그 호소의 말이 다음과 같은 것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부활 사건에 대한 안이야기 작자의 ‘평가’가 복음서 기자들의 그것과 얼마나 다른가 하는 점

이 선명하게 확인되는 것이다.

「아버지 저도 저렇게 남고 싶습니다. 사흘 후의 제가 다시 살아나 얼마간 저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들 수천년 땅 위를 떠돌며 저들에게 수군댈 저 사람을 여쭙시렵니까?」(이문열 1979, 156)

위에 인용된 예수의 대사를 찬찬히 살펴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긍정할 수 있으며, 그것이 하나의 초월적·기적적 사건이라는 점도 긍정할 수 있다는 것이 안이야기 작자의 생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예수 부활의 사건이 갖는 의미는 ‘겨우 얼마간 일부 대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요, 아하스 페르츠에 의해 대표되는 비판자들의 논리 앞에서는 상당히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그렇게 대단한 수준이 못된다는 판단이 안이야기 작자의 생각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 3.2. 개작본 『사람의 아들』의 경우

앞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문열은 1987년에 이르러 『사람의 아들』을 대대적으로 개작한 바 있다. 역시 앞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바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아들』의 개작을 행하면서 이문열이 주로 사용한 방법은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서 원작본에다 덧붙이는 것이었다. 이러한 작업의 과정을 통하여 처음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으로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존재는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젊은 날의 아하스 페르츠가 예수와 만나기 전에 자못 다양한 종교들과의 접촉을 가지면서 견문을 넓혀가는 모습을 그린 대목이다. 그 들은, 아하스 페르츠를 교조로 떠받드는 새로운 종교의 경전으로 씌어진 것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글인데, 이 글은 「쿠아란타리아서(書)」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 이 둘은 모두 『사람의 아들』의 안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과 복음서의 기록 사이의 관계가 과연 어떤 것이냐라는 물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특별한 주목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이 둘 중 어느쪽인가? 후자쪽이다. 전자의 대목은, 상당히 긴 분량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 속에 새롭게 도입된 결과로 해서 이 소설과 복음서의 기록 사이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은 거의 없다. 그 대목 중의 어떤 장면도 복음서의 기록과 공존이 불가능할 만큼 상충되는 요소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다르다. 「쿠아란타리아서」라는 제목 아래 소개되는 이 대목이 등장하게 됨으로써, 개작본 『사람의 아들』은 원작본 『사람의 아들』에서 시종일관 유지되었던, 복음서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의 ‘조심스러운 자세’를 적어도 이 대목에 있어서만은 과감하게 폐기하는 결과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쿠아란타리아서」 가운데서도, 독자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사태 변화를 가장 두드러지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이, 바로 예수 부활의 사건을 문제삼고 있는 부분이다. 「쿠아란타리아서」의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제 저 거짓된 ‘사람의 아들’은 그가 온 곳으로 돌아갔고, 대지는 다시 너희들의 손에 붙여졌다. 도둑들이 무덤 막은 돌을 굴러 버린 뒤 그 수의를 벗겨가고 다시 승냥이떼가 그의 죽은 몸을 물어 간 일이 입에서 입으로 옮는 사이에 좀 부풀리어졌다. 손 네가 흔들릴 게 무엇이나? 거기에 휘말린 죽대 약한 사람들이 헛것을 보고 그가 살아났다고 수근대며 다닌들 네가 두려워할 게 무엇이나?

(이문열 1987, 251~252)

개작본 『사람의 아들』의 안이야기를 보면, 위에 인용된 내용을 포함하여, 「쿠아란타리아서」 전부를 말하고 있는 발화의 주체는 바로 ‘위대한 지혜’라고 한다. 이 ‘위대한 지혜’는 본래 야훼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신인데, 야훼가 제멋대로 왜곡·변형·타락시켜 놓은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광야에서’ 진정한 ‘사람의 아들’인 아하스 페르츠를 찾아 진정한 계시의 말씀을 전해 준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위대한 지혜’에 의해 발해진 참다운 계시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쿠아란타리아서」에 의하면,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은, 위에 인용된 대목에서 분명한 어조로 이야기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우스꽝스러운 ‘헛소문’에 불과하다. “예수는 분명히 죽었다. 도둑들이 무덤의 돌을 굴러 버리고 그의 수의를 훔쳐 갔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승냥이들이 물어 갔다. 실상은 이러한 것인 데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만을 알고서는 허황한 픽션을 꾸며 내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전부다”-「쿠아란타리아서」에서 ‘위대한 지혜’는 이러한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복음서의 기록과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을 터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예수 부활 사건의 초월적·기적적 성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것 또한 말할 필요조차 없을 터이다.

그런데, 이문열은 『사람의 아들』을 개작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 추가한 「쿠아란타리아서」에 해당하는 대목 속에 이처럼 예수 부활의 사건에 대하여 극단적인 반(反)복음서적 해석을 담고 있는 주장을 포함시켰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원작본 『사람의 아들』 속에 들어 있었던, 예수의 부활에 관한 복음서의 기록과 조금도 상충되지 않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대목 또한, 아무런 수정도 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존치시켰다.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두 개의 부분, 즉 처음부터 들어 있었던 부분과 새롭게 씌어져 추가된 부분은 바로 그 예수 부활의 사건에 대하여 각각 전혀 상이한 사실인식과 해석을 담고 있는 셈인데, 이런 두 개의 부분이 동일한 소설작품 속에서 나란히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로 볼 때, 이 작품 자체가 하나의 중대한 전후 모순을 범하고 있다는 결론이 불가피해지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는 않다. 어째서 그렇지 않은가?

앞서 원작본 『사람의 아들』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이미 언급했던 바와 같이, 원작본 『사람의 아들』 속에 들어 있는, 예수의 부활과 관련된 장면은, 민요섭이 쓴 ‘안이야기’의 일부로 제시된 것이었다. 그러면, 개작본 『사람의 아들』에 와서 처음으로 등장한 「쿠아란타리아서」라는 것은 누가 쓴 것인가? 역

시 민요섭이 쓴 것인가? 어떤 면에서는 그러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쿠아란타리아서」의 초고를 처음 쓴 것은 분명 민요섭이지만, 나중에 남경사의 손에 입수된 「쿠아란타리아서」는 민요섭이 원래 썼던 초고가 아니고 조동팔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민요섭이 원래 썼던 초고는 조동팔이 태워 버린 것으로 되어 있다. 『사람의 아들』의 결이 이야기에서 형상화되고 있는 면모로 보건대, 조동팔은 민요섭보다 훨씬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거니와, 이처럼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가 「쿠아란타리아서」를 수정하는 작업에 임했을 때에는 애초의 텍스트에 담겨 있었던 주장보다 훨씬 극단적이고 반복음서적인 방향으로 손질을 가했으리라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다면, 예수 부활의 사건과 관련을 맺고 있는 두 개의 대목 중, 원작본 『사람의 아들』에서부터 들어 있었던 대목에는 민요섭의 생각이나 성격이 주로 반영되고 있는 반면, 개작본에 이르러 「쿠아란타리아서」의 일부라는 형식으로 새로이 추가된 대목에는 조동팔의 생각이나 성격이 주로 반영되고 있으리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결국, 개작본 『사람의 아들』을 논하면서 우리가 ‘예수 부활의 문제와 관련하여 전후 모순이 발견된다’고 말할 이유는 전혀 없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개작본 『사람의 아들』 속에 예수의 부활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전혀 상이한 시각에 입각한 두 가지 이야기가 방금 설명된 바와 같은 방식으로 나란히 제시되어 있다는 사실은, 단지 ‘전후 모순’이라는 이름으로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좋은 의미에서의 ‘다성성(多聲性)’을 소설 속에 구현한 예로서 적극적인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을 법하다. 작가 이문열은 이 두 가지 이야기 중의 하나는 민요섭에게, 다른 하나는 조동팔에게 각각 배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작가 자신은 둘 중 어느 쪽도 드러내어 편들지 않는 중립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 부활의 문제 자체에 대한 다양한 상상과 성찰을 시도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을 제공해 준 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로서는, 이런 점에서 개작본 『사람의 아들』에 대한 적극적 평가

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정작 「쿠아란타리아서」의 해당 대목에서 실제로 제시되어 있는 ‘도둑’이니 ‘승냥이’니 하는 투의 설정은 너무나도 통속적이며 또 경박한 것이라는 점에서 불만을 표시해 두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사반의 십자가』에서 예수의 부활을 다룬 방식」에서 예수 부활의 사건이 개작본 『사반의 십자가』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논의했을 때, 김동리가 개작본을 쓰면서 예수 부활의 사건과 관련하여 새롭게 꾸며낸 이야기의 내용이 다분히 통속적이라는 이유로 비판을 가한 적이 있지만, 개작본 『사람의 아들』 중 「쿠아란타리아서」에 해당하는 대목에서 예수 부활의 사건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도둑’이니 ‘승냥이’니 하는 것들을 끌어들이는 모습은 개작본 『사반의 십자가』의 경우에 못지 않게 통속적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개작본 『사람의 아들』에서 예수 부활의 사건을 다루는 방식은, 또한, ‘경박성’이라는 면에서 보면, 개작본 『사반의 십자가』보다도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sup>2)</sup>

#### 4. 맺는 말

이 글의 서두 부분에서 밝혀 두었던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인에 의해 씌어진 장편소설 가운데 예수를 직접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 작품으로는 『사반의 십자가』, 『가롯 유다에 대한 증언』, 『사람의 아들』 등 세 편을 꼽을 수 있다. 이 글에서 나는 그 세 편 중 『가롯 유다에 대한 증언』과 『사람의 아들』에서 예수의 부활이라는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해 보았다. 그 점에서 이 글은 같은 물음에 초점을 두되 『사반의 십자가』를 대상으로 해서 논의를 전개하였던 「『사반의

2) 서양에서는 일찍부터 예수 부활의 사건을 통속적으로 설명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진 바 있지만,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서도, 「쿠아란타리아서」에 제시되어 있는 설명 방식처럼 경박한 면모를 보이는 것은 흔하지 않은 듯하다. 적어도 내가 『잔혹』 및 『예수의 비밀』과 같은 책에서 찾아내어 「『사반의 십자가』에서 예수의 부활을 다룬 방식」 속에 인용한 바 있는 이야기들 가운데서는 그만큼 경박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십자가』에서 예수의 부활을 다룬 방식』이라는 논문과 자매편의 관계로 연결된다. 이제 그 동안의 논의를 통하여 밝혀진 사항을 종합하면서 생각을 조금 더 진전시켜 볼 때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결론을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1) 『가룟 유다에 대한 증언』은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전혀 아무런 언급도-아주 희미한 암시조차도-하지 않음으로써, 이 문제와 맞닥뜨리는 것을 아예 회피해 버리고 있다. 반면 『사람의 아들』에서는 이 문제가 적극적으로 다루어진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에서 흥미로운 점은, 액자소설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 작품 속에서, 예수의 부활이라는 문제와의 대면은, 바로 그 액자구조의 안이야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작중인물이 만들어낸 허구의 일부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수의 부활이라는 문제와의 대면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전체를 통하여, 작가 자신은, 이 문제에 자기 자신의 실존을 걸고 달려드는 것 같지 않다. 달리 말해, 작가 자신이 이 문제를 놓고 정말 치열한 고뇌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인상을 별로 주지 않는다. 원작본의 경우나 개작본의 경우나 이 점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일하다. 원작본의 경우, 예수의 부활에 관하여 작품 속에 제시되어 있는 모든 생각은 어디까지나 안이야기의 작자로 되어 있는 민요섭의 생각일 뿐이며 작가 자신은 그것과 절실한 관련이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관련밖에 없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개작본의 경우에는 그 '생각'의 주체가 민요섭과 조동팔 두 사람으로 늘어나 있다는 점에서 원작본과 차이를 보일 뿐, 작가 자신의 내면이 이 문제와 무관하거나 미미한 관련밖에 없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원작본과 완전히 똑같다.

『사반의 십자가』의 경우는 어떠한가? 예수의 부활이라는 문제와 대결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그것과 맞서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가룟 유다에 대한 증언』과 구별된다. 그런가 하면, 작가 자신의 실존을 걸고 이 문제와 대결하고 있다는 느낌을-달리 말해, 작가 자신이 이 문제를 놓고 정말 치열한 고뇌의 시간을 가진 결과로 작품이 씌어지기에 이르렀다는 느낌을-강

렬하게 던져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사람의 아들』과 구별된다.

(2) 『가룟 유다에 대한 증언』에서 작가 백도기는 예수가 지닌 면모 가운데 ‘사랑’이라는 이념의 모범적 구현자라는 측면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다. 이렇게 하면서 그는 오로지 인간적인 윤리 차원의 쟁점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사람의 아들』에서는 예수의 여러 가지 면모 중에서 ‘사랑’이라는 이념의 구현자라는 측면을 무시하는 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가진 초월적 성격에 주목함으로써, 『가룟 유다에 대한 증언』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게 된다.

『사반의 십자가』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 작품에 나타나 있는 김동리의 예수관(觀)은 백도기의 그것보다는 이문열의 그것에 더 가깝다. 즉 예수의 면모 가운데, 인간적인 윤리의 차원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초월적 성격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 입장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김동리의 예수관은, 이문열의 예수관에 비하면, 극단적으로 한쪽에만 기울어져 있다는 인상을 상대적으로 덜 주는 편이다.

(3) 백도기가 『가룟 유다에 대한 증언』을 쓰면서 예수의 부활을 둘러싼 문제와 정면으로 대결하기를 회피해 버린 것은 패기 부족의 소치로 비판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각도를 달리해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작가 자신이 평소에 깊이 고민해 온 문제로만 탐구의 범위를 한정하고, 그 범위 바깥에까지 함부로 뛰어나가는 것을 스스로 자제한 신중성의 결과로 높이 평가될 수도 있을 법하다. 이 후자쪽의 평가는, ‘작가 자신이 평소에 깊이 고민해 온 문제’였음이 확실한 윤리적 차원의 문제와 맞서 씨름하는 마당에서 그가 상당한 치열성과 진지성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보면, 더 큰 무게를 얻게 된다.

그러면 『사람의 아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 작품에서 작가 이문열은 예수의 부활을 둘러싼 문제와 정면으로 대결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패기’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작가는 당연히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하다. 그런데 앞에서 이미 지적되었던 바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아들』에서

이문열이 이 문제와 대결하는 모습을 실제로 주의깊게 살펴보면, 거기에서는 작가 자신이 지닌 실존의 무게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 달리 말해, 작가 자신이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고뇌의 시간을 가진 바 있다는 인상이 별로 들지 않는다. 이러한 지적은, 『사람의 아들』 중 예수의 ‘부활’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이 작품에서 예수가 거론되는 대목 전부에 대해서 예외 없이 해당되는 지적이다.

『사람의 아들』을 주의깊게 읽어볼 때, 작가가 지닌 실존의 무게가 이 작품 속에 결려 있다는 느낌이라든가, 그 자신이 예수라는 대상과 씨름하면서 치열한 고뇌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다는 느낌 같은 것이 미약한 대신, 독자로서 아주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작가가 지적인 호기심을 강하게 지닌 한 딜레탕트의 자리에 서서 ‘예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인상이다. 이보영이 일찍이 “『사람의 아들』의 작자에게는 종교적 딜레탕트의 요소가 적지 않다”(이보영, 60)고 한 것은 옳은 지적이다. 이처럼, 이문열은 원래 ‘예수 문제’에 대해서 딜레탕트의 수준 이상으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만큼, 그가 『사람의 아들』을 처음 발표한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2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면서 세상에 선보인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소설들 중 ‘예수 문제’를 또다시 정면으로 다룬 소설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조금도 이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상하기는커녕,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로 여겨진다.

『사람의 아들』은 이처럼 다분히 지적인 호기심으로 가득찬 딜레탕트의 입장에서 씌어진 소설로 보이며,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한 편의 산뜻한 지적 유희라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다. 『사람의 아들』의 도처에서 술하게 튀어나오는, 다분히 작가의 박식을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의 소산으로 읽히는 각주들의 존재도 이러한 ‘지적 유희’의 분위기를 강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다.

지금까지 내가 『사람의 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개해 온 논의는, 이 작품의 문학적 가치를 낮추어 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지적인 호기심으로 가득찬 딜레탕트의 입장에서 씌어진 소설이라 하여, 또 한 편의 산뜻한 지적 유희라는 인상을 강하게 주는 소설이

라 하여, 반드시 문학적으로 낮게 평가되어야 마땅하다는 법칙은 어디에도 없다. 이러한 유형에 드는 소설들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수작이 있을 수 있으며, 또 졸작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에 드는 소설들 가운데에서 수작으로 인정될 만한 작품과, ‘작가의 실존을 결코’ ‘치열한 고뇌의 시간을 거치는 가운데’ 씌어진 작품이기는 하지만 불행하게도 졸작으로 판정될 수밖에 없는 작품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당연히 전자를 후자보다 우위에 두어야 마땅할 터이다. 『사람의 아들』은 최소한 ‘지적인 호기심으로 가득찬 딜레탕트의 입장에서’ ‘산뜻한 지적 유희라는 인상을 주게끔’ 씌어진 소설의 유형에 드는 작품들 가운데서는 비교적 수작으로 꼽힐 만한 존재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상에서 언급된 『가롯 유다에 대한 증언』 및 『사람의 아들』의 경우와 비교할 때, 『사반의 십자가』는 어떠한가? 우선 이 작품은 예수의 부활을 둘러싼 문제와 정면으로 대결하는 패기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가롯 유다에 대한 증언』과 반대되며, 『사람의 아들』과 동일한 자리에 놓인다. 그런가 하면 이 작품은, 지적인 호기심으로 가득찬 딜레탕트의 입장에서, 산뜻한 지적 유희라는 인상을 주게끔 씌어진 소설이 아니라, 작가 자신이 평소에 깊이 고민해 온 문제를 다룬 작품이며, 그 문제를 다루는 과정을 통하여 상당한 치열성과 진지성을 보여준 작품이라는 점에서는, 『사람의 아들』과 반대되며, 『가롯 유다에 대한 증언』과 동일한 자리에 놓인다고 말할 수 있다.

(4) 지금까지 『사반의 십자가』, 『가롯 유다에 대한 증언』, 『사람의 아들』 등 세 편의 작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를 종합해서 판단해 볼 때, 이 세 편의 소설은, 예수의 부활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각각 한 가지씩의 흥미로운 유형을 대표해 주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유형이라고 보아야 할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이 물음에 답하고자 하는 사람들 각자가 지니고 있는 예수관 혹은 기독교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다만, 『사반의 십자가』, 『가롯 유다에 대한 증언』, 『사람의 아들』

등, 서로 다른 세 가지 유형 가운데 한 가지씩을 맡아서 제시해 주고 있는 소설들 모두가, ‘문학적 성과’라는 기준에서 볼 때 비교적 호의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예외 없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지적은, 그 세 작품을 나란히 놓고 면밀하게 견주어 볼 경우, 그 작품들 상호간에서 어느 정도의 차등관계가 발견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과연 어떤 이유에서 그 세 작품 모두의 문학적 성과에 대한 호의적 평가가 가능한가? 그리고 그 세 작품 상호간의 비교에서 발견되는 ‘어느 정도의 차등관계’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이 곧 이어져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글 속에서 이미 어느 정도 제시된 바 있다고 생각되기에 재론을 피하고자 한다.

## 인용문헌

- 백도기, 『가롯 유다에 대한 증언』, 『우리 시대 우리 작가』 15, 서울: 동아출판사, 1987.  
 마이클 베이전트, 리처드 레이, 『예수의 비밀』, 최석용 외 3인 공역, 서울: 세기문화사, 1992.  
 윌슨, 콜린. 『잔혹』, 황중호 역, 서울: 하서출판사, 1991.  
 이문열, 『사람의 아들』, 서울: 민음사, 1979.  
 \_\_\_\_\_, 『사람의 아들』 개정판, 서울: 민음사, 1987.  
 이보영, 『한국소설의 가능성』, 서울: 청예원, 1998.  
 한스 쾅, 『왜 그리스도인인가』, 정한교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82.

[Abstract]

**A Study on the Treatment of Jesus's Resurrection in Korean Novels**

Dong-Ha Yi  
(University of Seoul)

Dong-Ri Kim's *Shaphan's Cross*, Do-Gi Paek's *A Testimony about Judas Iscariot* and Mun-Yeol Yi's *The Son of Man* have a common point. In the three novels, Jesus Christ plays an important role. *Shaphan's Cross* researches the theme of Jesus's resurrection directly and minutely. Dong-Ri Kim shows the attitude of a sincere philosopher in this work. *A Testimony about Judas Iscariot* avoids such a theme in treating Jesus Christ, but Do-Gi Paek is concerned only about the moral problem, showing the attitude of a sincere philosopher. *The Son of Man* researches the theme of Jesus's resurrection directly and minutely like *Shaphan's Cross*, but Mun-Yeol Yi does not show the attitude of a sincere philosopher. He, instead, shows the property of a dilettante who enjoys an intellectual game. In short, these three novels play important roles in enlarging the territory of Korean literature.